



기독교대한감리회

청파교회

교회세운날 1908.5.1

함께 지어져가는 우리

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
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

주 일 낮 예 배 순 서

【 변화주일 】

인도 : 이재훈 목사

전 주	반주자
임재의 기원 626.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(x3)	다 함께
예배로의 부름	인도자
경배의 찬송 43. 즐겁게 안식할 날	다 함께
공동기도	다 함께

자비하신 하나님, 날마다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. 성실하신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. 서두르지 말고 더디더라도 주의 길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

주님,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. 40일 동안의 여정이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뿐 아니라 관습적인 신앙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. 변화는 잠시 멈춰 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주어지는 은총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. 멈춰 설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.

주님,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.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자 삶의 불안감은 커지고 믿음은 흔들렸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고요히 삶의 근본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. 주님께서 나와 가족,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여쭙겠습니다. 주님, 단힌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참회의 침묵기도	다 함께
위로의 말씀 사 58:10	인도자
교 독 문 75. 마태복음 6장	다 함께
영 광 송 2. 찬양 성부 성자 성령	다 함께
찬 양 366. 어두운 내 눈 밝히사	다 함께
성경봉독 민 24:1~7	인도자

“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”

봉 독 자

“하나님, 감사합니다”

다 함 께

특 송	봄	정다운 홍예선 가족
말 씬	눈을 뜬 사람	김기석 목사
거둠의 기도		다 함께
찬 양	515. 눈을 들어 하늘 보라	다 함께
공동체 소식		김기석 목사
평화의 인사		다 함께
보냄의 말씀		다 함께

인 도 자 : 교우 여러분,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. 앞 이 캄캄하다 하여 주저앉아만 있지 마십시오. 지금 할 수 있는 작 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. 주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순간에도 계속 말을 건네 오십니다. 주님 편에 서십시오.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되십시오.


다 함 께 : 아멘. 속은 텅 빈 채 믿음 좋은 이의 겉모습만 취한 지난날의 모습 을 반성합니다.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.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. 주의 마음을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영의 눈 을 뜬 자가 되겠습니다. 말과 삶이 일치될 위해 애쓰는 일상의 순 례자로 살겠습니다. 주님,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. 아멘.


찬 양	635. 주의 기도	다 함께
축 복		김기석 목사

다음주

설교	기도	성경봉독	인도
김기석	공동기도	인도자	이재훈

 청파교회 페이스북 <https://www.facebook.com/chungpachurch/>

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-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'예배실황' 클릭

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: 친구검색창에 '청파교회' 검색 후 채널 추가

